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른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분석

주영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주저자)

서 혁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소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과정(교신저자)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2-045331).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논의

I. 서론

국어 능력은 모든 학습과 직무수행의 근간이 되며 평생에 걸쳐 활용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어 능력은 사회, 수학, 과학 등의 기타 과목의 학업 성취도와도 상관관계가 있으며(박은아 · 송미영, 2008; 장명덕 · 정철 · 정진후, 1999) 업무성과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등과도 관련성을 보여 준다(Kirsch & Guthrie, 1984). 특히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 속에서 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국어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어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어 성취도에서 성별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2006년에 실시되었던 PIRLS(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의 결과에서 45개의 참가국 중 43개국의 여학생의 국어 성취도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를 앞섰는데(PIRLS, 2006), 이는 국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와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국어 성취도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9 PISA 읽기 영역에서 우리나라

라 읽기 영역 남녀 점수 차는 PISA 2000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격차가 두 배 이상 커졌다(옥현진 · 김경희, 2011). 2005 한국교육종단연구의 결과에서도 학년에 따른 성취도에 있어 국어 성취도의 증가폭이 가장 낮았으며 수학 교과의 성취도에 있어 성별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은 반면, 국어 교과와 영어 교과에서는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드러났다(임현정, 2009).

중학생은 언어 발달 과정상 결정적인 시기를 지난 반면 학습능력 및 인지 상태는 발달해 있으며, 자의식이 뚜렷해지고 정서적으로도 예민한 시기로 교과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인지 발달과 정서를 고려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최진황 · 이윤, 2003). 그러나 이와 같이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가 줄어드는 반면(옥현진 · 김경희, 2011), 모든 학습의 근간이 되며 일상생활과 평생학습을 좌우하는 국어 교과에서 성취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학습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어 교과 과정과 교수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관련 변인과 교수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학습자 관련 변인으로는 학습동기와 독서태도, 학습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 동기는 학업성취에 있어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 이제까지 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조현철, 2011; Deci & Ryan, 1985; Lepper, Corpus & Iyengar, 2005).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동기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임은미 · 이성진, 2001) 우리나라 학생들의 동기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독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국어 성취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으나(이경화, 2005), 우리나라의 경우 고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독서량과 흥미가 감소하는 실정이다(김성식, 2008). 이에 국어 교과에 관련하여 내재적 동기를 나타내는 독서태도와 더불어 학업 자체에 대한 외재적 학습동기를 동시에 분석하여 그 상대적인 영향력과 성별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독서 교육의 방향과 국어 교과 과정의 재정비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어 교과에 있어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읽기와 쓰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국어 교과 활동의 기본이 되는 읽기는 다양한 변인들이 개인의 인지 과정 속에서 적절한 조합과 체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화된 의미 구성 활동이기 때문에 인지 전략 과정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Posner & Carr, 1992). 또한 학습전략은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학습전략을 일관성 있게 더 자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습전략의 사용이 높은 양상을 보인다고 했으나(Zimmerman & Martinez-Pons, 1986; Wolters & Pintrich, 1988), 현장의 실증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 관련 변인으로는 교사 관련 특성의 하나인 교수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봉괴 현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교육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실 내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그 극복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2009년 교원의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이 발표되었고, 교원능력평가제 전면 시행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등 교육혁신을 위해 교수자의 역할과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야 조명을 받기 시작한 교수법과 수업 행동에 대한 연구는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방법 등에 대한 제언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이 있고, 교실 수업 상황에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는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박성호 · 김기석, 2009).

그러므로 학생들이 지각한 교수전략에 대한 고찰은 교실 내의 상호작용 수준이나 수업 효율성, 교수법 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교원의

능력 개발에 관련된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07 한국교육종단연구 3차년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도출하고, 이들 변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하여 국어 성취도의 향상과 성별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3.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업성취도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

선행연구들은 학습자 관련 변인과 교수 관련 변인들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있어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거나 영향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증을 시도해 왔다. 그중 동기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의 하나로 다양한 동기이론들이 발전되어 왔다. 동기는 일원화된 현상이 아

니며 개인에 따라 수준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동기는 행위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는데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체계는 내재적 학습동기와 외재적 학습동기의 구분이다. 내재적 학습동기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내재적인 만족과 학습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위해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외재적 학습동기는 학습자체와 분리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 학습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Deci & Ryan, 1985).

많은 선행연구들은 내재적 학습동기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재적 학습동기는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고 있다(Corpus, Gilbert & Hayenga, 2009; Lepper et al., 2005; Wang & Guthrie, 2004). 그러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외재적 학습동기 또한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신종호 · 유승민 · 서은진, 2008). 실제 PISA 데이터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높은 외재적 학습동기를 보여 주고 있지만, 외재적 학습동기가 낮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OECD, 2004).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재적 학습동기는 감소하며 외재적 학습동기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수행중심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것이다(Lepper et al., 2005; Corpus et al., 200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경우 외재적 학습동기가 높을 것이며, 이는 국어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 독서에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독해에 있어 인지 과정뿐 아니라 독자의 동기나 효능감, 흥미, 가치와 같은 정의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박혜숙, 2008). 독서는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독서를 하게끔 이끄는 동기가 요구되며(Baker & Wigfield, 1999), 동기가 높은 독자는 독서량이 많아져 어휘나 독해력이 향상되고 그 결과 국어 성취도가 높아진다(Stanovich, 1986).

또한 독서는 청소년기를 넘어서 평생에 걸친 학업의 성공을 예측한다는 주장도 있다(Brazo, Shiel & Topping, 2007).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NAEP)는 독서에 흥미가 있는 학습자는 성취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 GPA에 영향을 주었다. PISA에 의하면 독서는 학년과 이민 여부에 이어 세 번째로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Brazo et al., 2007).

국내에서도 독서와 국어 성취도간의 관계를 규명한 모형들이 소개되어 왔다. 박혜숙(2008)은 독서시간에 따라 선호, 비선호 집단으로 분류하고 독서동기 요인들이 두 집단을 얼마나 정확히 분류하는지를 판별분석을 통해 규명하였고, 소연희(2008)는 독서 흥미, 독서량,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성 및 초등학생들의 국어 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서 흥미는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고, 독서량은 다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국어 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독서태도의 측정에 사용된 독서의 기준은 교과서, 참고서, 만화책을 제외한 독서에 대한 태도로 한정한다.

학습전략은 지각된 목적과 수단성에 관련되어 학습자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주도하는 행동과 과정이다(Zimmerman & Martinez-Pons, 1986).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을 정보의 획득, 조직, 저장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y)과, 자신의 인지 과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전략인 초인지(meta-cognition)전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동안 국어 성취도와 관련한 학습전략 연구들은 인지 과정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교화, 조직화, 시연과 같은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독자는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Dole, Nokes & Drits, 2009: 348), 이러한 인지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인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aris, Lipson & Wixson, 1983). 학자들은 초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독자는

단어 인식과 이해 과정을 모니터하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읽기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초인지 전략의 활용 능력은 국어교육에서는 반드시 지도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Paris et al., 1983; 김경주, 2005).

인지 전략의 훈련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국내외의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Sailors와 Price(2010)의 2~8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가 인지 전략을 사용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 집단의 학생들이 읽기 점수의 향상을 가져왔다. PISA 2000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중학생의 인지 전략은 읽기 능력과의 상관을 보여 주었다(김재철, 2005). 김희수(2008)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습전략 훈련을 받은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국어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이 증명되었으며, 가경신(2006)의 연구에서도 초인지는 고등학생의 읽기 능력에 영향력이 있었다. 김명희와 하정희(2008)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전략이 포함된 학습 기술이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는데,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학습전략의 영향력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집단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교수전략은 동일한 교과 과정과 교과 내용이라도 교수자의 전략과 방법,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교수전략을 교수자의 동기 부여, 상호작용 및 개별화, 교수 방법 및 수업 효율성을 포함한 교수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으로 정의 내린다.

최근 학계에서는 학교 수준의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수준의 변인에 대한 연구가 경시되어 온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교수(instruction)와 학습을 분리하여 인식되어 온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교수와 학습을 관련시켜 인식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노원경, 2009; 박성호 · 김기석, 2009). 교수 - 학습 수준에서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1960년대 ‘교수 효과 연구(Teaching Effectiveness Study)’로 명명된 ‘과정 - 산출’에서 찾을 수 있다

(박성호 · 김기석, 2009).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교수-학습 변인들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네덜란드 8학년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읽기 시간, 숙제, 주의집중 전략 등의 교수-학습 변인들이 국어 성취도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Driessens & Sleeegers, 2000), 여러 수업행동 중 수업구성만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 연구도 있었다(Schöwnwetter, Clifton & Perry, 2002). 국내에서는 구병두(2001)가 국내의 학위논문 185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교수-학습 관련 변인이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박성호 · 김기석(2009)은 구조화된 수업 특성 변인의 효과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밝혔고, 노원경(2009)이 한국교육종단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습자가 지각한 교수전략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박성호와 김기석(2009)은 선행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수-학습 수준의 효과에 관심을 가진 초기의 연구들이 교수 행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수업의 효과는 개별적인 수업행동이 아닌 수업 특성으로의 분석을 주장한다. 실제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증명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교수관련 변인은 구체적인 교수 행동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 내용의 명료성, 구조화된 설명, 다양화, 동기화 등과 같은 수업의 전반적인 특성이었다(박성호 · 김기석, 2009; 박소영 · 민병철, 2008).

2. 국어 성취도와 성별과의 관계

국내와 국제 평가에서 나타난 국어 및 읽기 성취도를 분석해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양상을 보인다(OECD, 2004; 옥현진 · 김경희; 2011; 임현정, 2009). PISA 2000의 두 성별 집단 간 점수 차이는 14점이었으나, 해가 지남에 따라 점수 차이는 증가 추세를 보여 PISA 2009의 점수 차이는 39

점으로 성별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는 특히 남학생의 읽기 성취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최숙기·박기범, 2011).

국어 성취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성별 차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인지 능력, 두뇌의 활성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를 독서에 대한 태도와 동기의 차이 등 정의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Baker와 Wigfield(1999)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 독서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읽기 성취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국어 과목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높았으며(Skaalvik & Skaalvik, 2004), 남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는 여학생들에 비해 읽기에 대한 동기, 자아효능감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Logan & Medford, 2011).

학습전략과 관련하여서도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Wolters와 Pintrich(1998)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학보다 국어 교과 학습에서 더 많은 인지 전략을 사용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모든 교과목 학습에서 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김재철(2005)이 PISA 2000 읽기 성취도의 결과를 사용하여 독서 흥미, 독서량, 인지 전략, 학문적 자신감, 읽기소양 간의 구조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인지 전략과 학문적 자신감의 상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 변인 간의 상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구조모형에서도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강하였고, 읽기소양에 대한 독서 흥미의 전체 효과도 여학생이 더 높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최숙기·박기범(2011)도 PISA 2009 읽기 성취도의 결과를 사용하여 성별에 따른 읽기 행동 및 동기 요인 간의 잠재평균 차이를 탐색하였는데,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형태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관계 속에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학습전략, 초인지 운용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지각된 교사의 수업 참여나 평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독서태도와 독서 시간과 관련한 잠재평균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최숙기 · 박기범, 2011).

본 연구에서는 김재철(2005)과 최숙기 · 박기범(2011)의 모형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모형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 교수 관련 변인을 포함하는 다각적 측면에서 국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원변량분석법을 사용한 김재철(2005)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측정오차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잠재평균분석법(Hancock, 1997)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고찰하여 성별에 따라 각 변인들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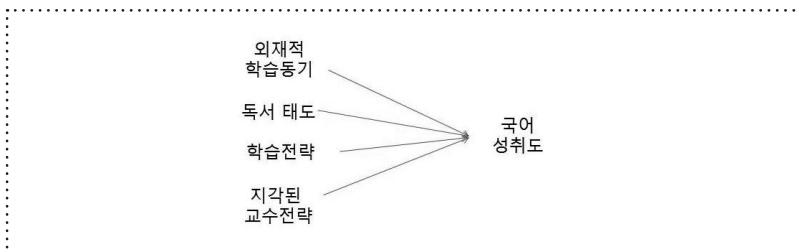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연구가설 1.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50개 중학교 6,908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05: Korea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05) 패널데이터 중 3차년도(2007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모집단은 2005년 전국 2,929개 중학교 1학년 학생 703,914명으로 충화군집무선추출법에 의해 3단계의 추출과정을 거쳐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6,908명 가운데 해당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5,846명을 최종 분석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대상은 남자가 3,053명(52.2%), 여자가 2,793명(47.8%)으로 남자가 다소 많았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 3차년도의 패널데이터 중 학생설문(독서태도, 지각된 교수전략)과 자기조절학습설문(외재적 학습동기, 학습전략), 국어 성취도의 정보를 사용하였다.

국어 성취도는 말하기 영역을 제외한 듣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영역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중학교 정규 수업시간(45분)에 평가할 수 있는 35개 문항(100점 만점)으로 측정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평가에 쓰인 지문의 출처는 교과서와 비교과서 영역의 균형을 맞추었으며, 지문의 유형도 문학과 비문학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김양분, 2006).

외재적 학습동기는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을 미래에 대한 도구적 목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묻고 있다(예: 직업을 얻을 기회

를 늘리기 위해, 미래에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값은 .728,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8124.047($p=.00$)으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9이다.

독서태도는 총 9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은 .862,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2203.036($p=.00$)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 는 .844이다.

독서태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과 같이 독서를 향유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향유’로, 요인 2는 ‘독서는 필 요한 정보를 찾을 때만 한다’, ‘독서는 꼭 해야 할 경우에만 한다’ 등과 같은 독서를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수단’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수단’ 관련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학습전략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 등의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연은 총 4문항(예: 나는 공부할 때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외운다), 정교화는 총 4문항(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킬 때 공부가 더 잘된다), 조직화는 총 5문항(예: 공부를 할 때 개념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관계를 정리해 본다), 초인지는 총 5문항(예: 나는 이번 주제에 대해 공부할 때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이며 Cronbach's α 는 .909이다.

지각된 교수전략은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어 수업시간에 학생이 인식한 교사의 교수전략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예: 선생님은 국어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은 .968,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76887.798($p=.00$)로 나타났고, Cronbach's α 는 .951이다.

지각된 교수전략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개 이상의 하위요인들에 교차부하된 5개 문항을 제거하고 총 16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외

된 문항은 ‘칭찬, 상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준다’, ‘학생들이 열성적으로 국어 학습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학생의 요구, 적성, 재능,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여 학습활동을 진행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한다’, ‘수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업방법을 활용한다’ 등이다. 분석 결과,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요인1은 ‘수업을 시작할 때 배울 내용을 간단히 제시한다’와 같이 도입 시 학습자의 주의를 끌고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도입’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학생들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와 같이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을 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학습자중심’으로 요인 3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의 난이도를 조절한다’와 같이 수업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교사의 재량으로 유동성 있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특성화’로 각각 명명하였다.

3. 자료 분석

사회과학의 모든 영역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개념들은 대부분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을 갖는 잠재변인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은 이러한 잠재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계량적으로 관찰 가능한 측정지표 간의 상관행렬계수를 통해 검증하는 통계기법이다(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p.2).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의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변수들로 측정된 자료를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 시켜 하위 구성개념수와 각 하위 구성개념별로 어떤 지표행동들이 주로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변수의 형태로 주어

진 많은 정보들을 쉽고 간단하게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제시해 주어 전체적인 자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김주환 외, 2009, p.70; 문수백, 2009, p. 204).

탐색적 요인분석 후, 그림 1의 가설적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그림 2의 통계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의 각 변인들은 측정변수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수로 설정되었는데, 측정변수란 이론적으로 명명한 잠재변수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측정도구로부터 얻은 값을 투입한 변수이다.

통계적 모형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고 최대우도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형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측정변수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측정변수는 총 13개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외재적 학습동기는 단요인으로 판명되었고, 외재적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3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외재 1, 2, 3의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독서태도는 ‘향유’와 ‘수단’의 2요인으로, 학습전략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의 4요인으로, 지각된 교수전략은 ‘도입’, ‘학습자 중심’, ‘특성화’의 3요인으로 판명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합을 사용하여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 다른 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고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문수백, 2009, p. 376). 이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한 결과, 변수들의 왜도는 절대값 최소 .19에서 최대 .61, 첨도는 절대값 최소 .09에서 최고 1.64의 값을 보였다. 측정변수의 표준왜도가 3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모형 하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05),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에서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기본 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국어 성취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값이 -18.214로 성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국어 성취도 평균값이 52.75, 여학생이 62.43의 수치를 보여, 남학생의 평균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측정변수의 상호상관행렬 및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변수의 상호상관행렬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5846)

측정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외재적	1. 외재 1	-											
학습	2. 외재 2	.65*	-										
동기	3. 외재 3	.64*	.72*	-									
독서	4. 향유	.08*	.03*	.03*	-								
태도	5. 수단	.10*	.06*	.05*	.40*	-							
	6. 시연	.36*	.10*	.11*	.31*	-.03*	-						
학습	7. 정교화	.10*	.19*	.12*	.44*	.17*	.37*	-					
전략	8. 조직화	.17*	.14*	.15*	.40*	.19*	.44*	.60*	-				
	9. 초인지	.12*	.12*	.12*	.42*	.12*	.44*	.55*	.65*	-			
	10. 도입	.07*	.06*	.06*	.39*	.11*	.14*	.22*	.29*	.23*	-		
교수	11. 학습자 중심	.07*	.07*	.07*	.14*	.11*	.11*	.19*	.23*	.18*	.59*	-	
전략	12. 특성화	.02	.01	.02	.13*	.02*	.14*	.18*	.22*	.19*	.56*	.76*	-
	13. 국어 성취도	.14*	.14*	.11*	.03*	.32*	.04*	.23*	.26*	.15*	.18*	.15*	.05*
													-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외재적 학습동기	3.35	.52			-.61		1.55		1.00		4.00		
독서태도	3.30	.70			.19		.09		1.00		5.00		
학습전략	2.58	.45			-.48		1.64		1.00		4.00		
교수전략	3.14	.68			-.54		1.52		1.00		5.00		
국어 성취도	57.37	20.87			-.29		-1.03		6.00		100.00		
남학생 국어 성취도	52.75	20.94			-.30		-1.6		6.00		98.00		
여학생 국어 성취도	62.43	19.58			-.58		-.58		8.00		100.00		

*p<.05

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형추정 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05)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χ^2 검증과 부합도 지수 평가가 있다. 그러나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어 표본이 크면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져 모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김주환 외, 2009, p.14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부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I를 통해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였다. RMSEA 값은 .05 이하면 좋은 부합도이며, TLI,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부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Bentler, 1990). 부합도 추정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RMSEA(.044~.050)을 비롯하여 모두가 좋은 부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각 잠재변인이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측정모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문수백, 2009).

측정변수들의 경로별 표준요인부하량은 .53~.89에 걸쳐 있으며 유의 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5), 측정변수들은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8이하로 변별적 타당도 역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문수백, 2009).

표 2. 측정모형의 부합도 검증 결과

(n=5846)

	CMIN	p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 모형	666.366	.00	48	.968	.977	.047 (.044~.050)

3. 구조모형의 검증

통계적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구체적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연구모형의 부합도는 TLI=.955, CFI=.967, RMSEA=.053(.050~.056)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도출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통해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 및 국어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구조모형의 부합도 검증 결과

(n=5846)

	CMIN	p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구조 모형	969.445	.00	56	.955	.967	.053 (.050~.056)

이에 따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외재적 학습동기의 영향력은 β

$=.10$ ($t=7.350$, $p<.05$), 독서태도의 영향력은 $\beta=.374$ ($t=18.779$, $p<.05$), 학습전략의 영향력은 $\beta=.096$ ($t=5.945$, $p<.05$), 지각된 교수전략의 영향력은 $\beta=.030$ ($t=2.123$, $p<.05$)이었다.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구조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를 표현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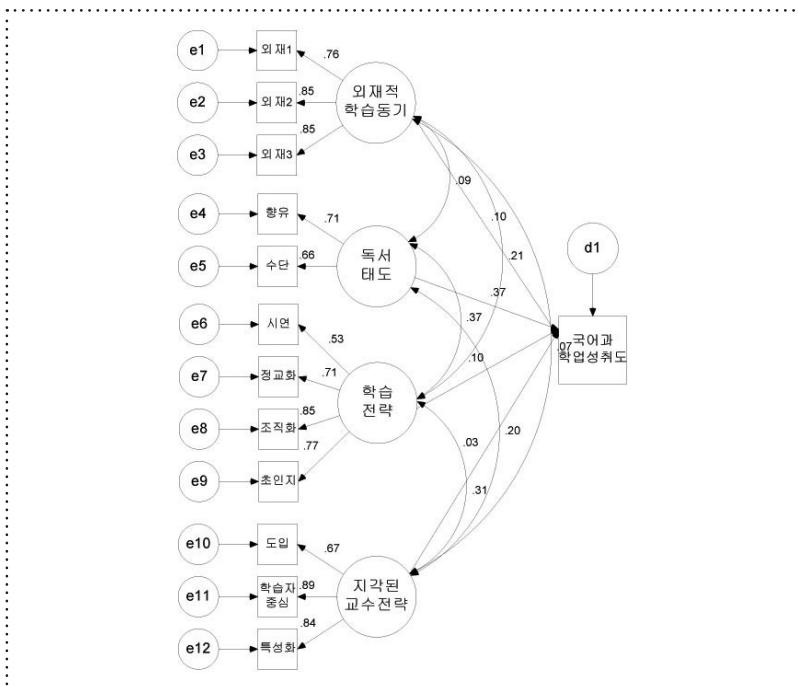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4.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은 평균

값을 직접 비교하는 ANOVA에 비해 각 변인 간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잠재평균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형의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하며(Hong, Malik, & Lee, 2003),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형태 동일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증한 수정모형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형태 동일성 검증을 위한 경쟁모형을 설정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중학생들의 집단은 동일한 구조모형(4요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집단의 형태 동일성은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Hong et al., 2003).

표 4. 형태 동일성 검증을 위한 경쟁모형의 부합도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남학생	345.076	48	.980	.973	.045(.041-.050)
여학생	409.617	48	.970	.959	.052(.047-.052)

2) 측정 동일성 검증

두 집단에 대해 동일하게 선정된 4요인을 바탕으로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저모형과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적재치가 동일하다는 동일성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의 χ^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 측정이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한 기저모형(모형1)의 부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적재치를 남녀 두 집단에 동일하게 부여한 모형2 역시 기저모형의 부합도와 거의 동일했다. 측정 동일성 모형은 기저모형에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χ^2 값의 차이($\Delta\chi^2$)를 통해 측정 동일성 검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유도와 χ^2 의 차이로 카이제곱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김주환 · 김은주 · 홍세희(2006)에 따르면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카이제곱 검증과 미친가지로 카이제곱 차이 검증도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와 TLI의 지수가 기저모형의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화 제약이 기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RMSEA 와 TLI의 지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형 2는 모형1에 비해 부합도 차이가 미미한 것($\Delta\text{TLI}=.002$, $\Delta\text{RMSEA}=.001$)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측정 동일성이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3) 절편 동일성 검증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2)과 각 측정변인의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성 모형(모형3) 간의 카이제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카이제곱 차이에 의한 절편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김주환 외(2006)에 따라 표 5에서 제시된 부합도 지수를 보면 TLI는 .006, RMSEA는 .003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절편 동일성 역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찰된 평균 차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표 5. 동일성 검증에 대한 부합도 지수

	χ^2	<i>df</i>	TLI	RMSEA
모형 1: 형태 동일성 모형 (기저모형)	754.694	96	.967	.034
모형 2: 측정 동일성 모형	847.381	104	.965	.035
모형 3: 측정 및 절편 동일성 모형	1102.054	116	.959	.038
모형 4: 측정, 절편 및 분산 동일성 모형	1225.592	120	.955	.040

4)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비교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에서는 1이라는 상수를 각 요인에

대한 독립변수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추정되는 회귀계수가 요인의 평균, 즉 잠재평균이 된다. 이 요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이 불가능하며 참조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는 것만 가능하다(Hancock, 1997).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그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남학생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두 집단에서 산출한 잠재평균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 공통 표준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인 분산 동일성 가정에 대한 가정 또한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분산 동일성 모형(모형4)을 절편 동일성 모형(모형3)과 비교한 결과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Delta\text{TLI}=.004$, $\Delta\text{RMSEA}=.002$), 요인 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효과 크기의 값은 공통 표준편차를 통해 산출되었다.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 값이 .2면 작은 것으로, .5면 중간 수준으로, .8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는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에 비해 독서태도, 지각된 교수전략, 학습전략, 외재적 학습동기 순으로 낮으며 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Cohen(1988)의 효과 크기에 미루어 볼 때 그다지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표 6. 남녀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잠재변수	남학생	여학생	효과 크기(d)
외재적 학습동기	-.037*	.000	.147
독서태도	-.889*	.000	.100
학습전략	-.287*	.000	.054
지각된 교수전략	-.342*	.000	.023

* $p<.05$

5. 주요변인 간 경로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

집단 간 비교(test of the structural model invariance across the groups)는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고찰하는 분석기법이다(김주환 외, 2009, p.267). 집단 간 비교는 구조모형에서 한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동일한지를 검증할 때 이용하며, 이는 교차타당성(cross-validation)을 적용한 분석 방법이다(Byrne, 2001). 즉 교차타당성이 같은 모형에서 두 개의 표본이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착안하여, 연구모형이 각 집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측정 동일성 제약(metric invariance constraints)과 집단 간 등가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의 과정을 거친다(김주환 외, 2009, p.267). 측정 동일성 제약은 연구 모형에서 각 집단 간 반응 결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며(MacCallum, Roznowski, & Reith, 1994), 집단 간 등가제약은 일련의 회귀계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한 후, 각 경로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Byrne, 2001).

측정 동일성 제약을 검증하기 위해 기저모형, 측정 동일성 모형의 부합도를 살펴본 결과, CFI=.964, TLI=.953, RMSEA=.038로 만족할 만한 부합도를 보였다.

표 7. 측정 동일성과 집단 간 등가 제약 검증 결과

	χ^2	<i>df</i>	$\Delta\chi^2$ (Δdf)	CFI	TLI	RMSEA
기저모형	1092.192	112	-	.965	.952	.039
측정 동일성 모형	1153.141	120	60.349(8)	.964	.953	.038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	1165.425	124	12.284(4)	.964	.954	.038

* $p<.05$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집단 간 등 가제약 모형의 부합도를 측정한 결과, 표 7에서 보듯이 만족할 만한 부합도를 보였다($\chi^2=12.284$, CFI=.964, TLI=.954, RMSEA=.038).

또한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4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과 비교하였다. 표 8과 같이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부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Delta\chi^2=3.284$, $\Delta\text{TLI}=.002$, $\Delta\text{CFI}=.000$, $\Delta\text{RMSEA}=.000$), 모든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8.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남녀집단 차이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자유도 변화량	χ^2 변화량	TLI 변화량
국어 성취도	← 외재적 학습동기	1	.015	.000
	← 독서태도	1	.954	.000
	← 학습전략	1	2.747	.000
	← 지각된 교수전략	1	.888	.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4	3.284	.002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각 잠재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남녀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다집단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

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모두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영향력은 독서태도, 외재적 학습동기,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의 순이었다.

외재적 학습동기가 국어 성취도에 미친 영향력은 고등학생들의 외재적 학습동기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종호 외(2008)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는 미래의 진학, 취업, 경제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 학습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임은미 · 이성진, 2001) 우리나라 학생들의 동기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학습동기 형성에는 가정과 학교뿐 아니라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심우엽, 2001), 우리나라 경우 입시라는 부담감과 무한경쟁의 사회 분위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외재적 학습동기를 유도하며 외재적 학습동기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구의 학생들(Wang & Guthrie, 2004)과는 달리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교육학계의 측면에서 서구의 연구 이론만 맹신하지 않고 토착심리학의 관점에서 한국의 교육 현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독서태도가 국어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독서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해 온 최근의 연구동향과 맥을 같이 한다 (Stanovich, 1986; 박혜숙, 2008). 독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향유는 독서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독서에 대한 몰입을 가져오고 독서과정 속에서 분석 · 요약 · 종합 · 추론 등의 통합적 사고력을 길러주어 결국 읽기와 가장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어 성취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낮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량과 수단적인 목적 이외의 독서 비율의 감소(OECD, 2009)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학습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국내외의 선행연구(Sailors & Price, 2010; 가경신, 2006; 김명희 · 하정희, 2008; 김희수,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읽기가 근간이 되는 국어 교과의 경우 단순한 해독이 아닌 텍스트에 나타난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연합하여 의미를 생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자동화된 해독과 어휘 인식 뿐만이 아니라 이해 과정, 배경지식의 활용, 인지 전략의 사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구병두(2001), 노원경(2009)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 관련 변인과 더불어 교수 관련 변인도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스키마 형성과 동기 부여, 학습자 특성 고려와 학습자 중심 수업 등 학습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끌어낼 수 있는 교수전략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에서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서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최숙기·박기범(2012)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잠재평균 차이는 Cohen의 효과 크기 기준으로는 미루어볼 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특히 교육학 분야에서는 맥락적 이해 없이 Cohen의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Coe, 2002; Glass, McGaw & Smith, 1981: 104)점과 국어 성취도 평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별차이의 고착화 현상을 감안할 때 이 차이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독서를 여성취향으로 간주하는 문화적 편견의 탓으로 해석되기도 하나(옥현진·김경희, 2011; Linnakylä& Malin, 2000) 사회적 구조, 교수학습활동, 성별에 따른 특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고찰해야 한다.

2010년도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학생 구성비를 보면 남학생의 49.7%,

여학생의 26.7%가 이공계를 진학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이 존재한다(한국 진흥능력개발원, 2011). 이러한 진로 구조로 인해 국어 과목에 대한 남학생들의 외재적 학습동기와 독서에 대한 향유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연속적 텍스트 보다는 표, 그래프 등의 비연속적 텍스트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옥현진 · 김경희, 2011), 논픽션이나 유머 관련 글, 만화책, 모험 소설, 잡지나 웹페이지 등의 읽기자료를 선호한다고 한다(Wilhelm, 2002; 최숙기 · 박기범, 2012). 또한 시각공간 능력이 발달하여 시각적 요소에 민감하고 독서와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때 독서에 더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Wilhelm, 2002; Golon, 2007). 그러나 7차 중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된 담화, 텍스트의 종류를 분석해 보면 수필, 설명문, 논설문, 현대시, 대화문의 비중이 높고(신아영, 2010), Wilhelm(2002)과 최숙기 · 박기범(2012)이 언급한 것과 같은 남학생들이 선호할 것으로 추정되는 종류와 내용의 텍스트의 출현 빈도는 높지 않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선호도가 고려된 내용과 종류의 텍스트 선정, 시각적 요소와 복합다중 매체의 활용, 실생활과의 연계나 상호작용 등이 교수학습 장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른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 및 국어 성취도에서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남녀집단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국어 성취도를 높이고 성별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재적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미래의 목표 수립의 방향 설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진로에 관련된 수학이나

과학뿐 아니라 현재 국어 교과의 학습이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며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둘째,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특히 남학생들의 독서태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학교, 가정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환경과도 많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하는 습관과 부모의 관심, 책을 선물 받거나 도서관의 정기적인 방문, 가정에서 많은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던 등의 긍정적인 경험은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한다(Kubis, 1996; Partin, 2002). 이에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와 도서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학생의 경우 과제를 위한 수단적인 독서보다는 관심분야의 도서나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 받은 도서를 찾아 읽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Smith & Wilhelim, 2002). 이러한 남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개인의 관심과 지적 탐구를 위해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교사가 양서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 제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기타 과목과도 독서활동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교과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온라인에서의 읽기 활동이 활발하며(Karim & Hasan, 2007),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성취도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Logan & Johnston, 2009)을 고려하여 디지털 세대에 맞는 온라인 읽기 활동을 개발하고 남학생이 선호하는 만화책이나 모험, 판타지 소설 등도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교과 과정과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부모들이 독서의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갖고 자녀의 독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전략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워크숍 등의 제공으로 학습자들에게 그 중요성과 활용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초인지 전략의 학습이 전략적 교수 학습 과정에 있어서 인지 전략보다 전이력이 크다(김경주, 2005)는 점을 감안하여 국어과 교수 학습 과정에 반영하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전체적인 국어학습을 조절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 과정에서 스키마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업 구성으로 전개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의 연결 및 의미부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스스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수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시각공간능력이 발달한 남학생들에게 텍스트 분석의 체계적 접근 방식을 유도하고 내용 정리에 있어 기호, 다이어그램, 차트 등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성별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수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동기를 고취시키는 정의적인 측면의 지원도 중요하다. 특히 교수전략에 대한 남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간 능력이 발달한 남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동적인 활동의 개발,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예시의 활용, 텍스트의 이해를 돋기 위한 삽화나 도표의 활용, 상호작용과 그룹 활동의 확대가 요구되며 무엇보다 변화하는 디지털 세대들의 학습방식에 대한 연구와 이에 맞는 교수전략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과 국어 성취도와의 인과관계,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비교 및 주요 변인 간의 경로계수 차이를 구조적으로 검증하였고 성별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모집단의 특성을 보다 폭넓게 반영한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의 일반화가 다소 확보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학습자 관련 변인과 교수 관련 변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사교육, 학교의 지원 등의 변인을 포함시켜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더 심도 있게 규명하기 위해 문항별 정답률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인지 영역, 지문 유형 등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파악하게 해 주어 남학생들이 성취도가 낮은 영역에 대한 교육적 강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3차년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획단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잠재성장 모델을 사용하여 종단적으로 학업성취도 및 관련 변인의 추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2.10.08. 투고되었으며, 2012.10.24. 심사가 시작되어 2012.11.12.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가경신(2006), 「읽기 능력과 읽기 인지 변인과의 상관」, 『독서연구』 제15집, pp. 243~269.
- 구병두(2001), 「교수 - 학습 관련 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3권 2호, pp. 131~140.
- 김명희 · 하정희(2008), 「학습동기와 학습기술이 학업성취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심으로」, 『아동교육』 제17권 2호, pp. 33~48.
- 김경주(2005), 「읽기 과정에서 인지 전략과 상위 인지 전략」, 『우리말글』 제32집, pp. 29~50.
- 김성식(2008),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I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2006),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재철(2005), 「성별과 학습선호도 유형에 따른 독서 흥미, 독서량, 인지 전략, 학문적 자신감, 읽기 소양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9권 1호, pp. 93~114.
-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주환 · 김은주 · 홍세희(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20권 1호, pp. 243~264.
- 김희수(2008), 「읽기 이해능력 학습전략 훈련이 중학생의 자기조절 학습기능 습득과 국어 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 CSQ3Rs 학습전략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22권 2호, pp. 385~403.
- 노원경(2009), 「학생이 지각한 교수전략과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6권 4호, pp. 169~190.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 박성호 · 김기석(2009), 「지각된 수업 특성이 중학생의 수학 성정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 제36권 1호, pp. 3~21.
- 박소영 · 민병철(2005), 「참된 교수방법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 지각을 바탕으로」, 『한국교육』 제35권 4호, pp. 131~151.
- 박은아 · 송미영(2008),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국어과의 읽기 능력과 사회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분석」, 『사회과 교육』 제47권 3호, pp. 241~266.
- 박예숙(2008), 「아동의 독서동기, 독서활동, 국어 교과 성취도의 관계」,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집, pp. 108~131.
- 소연희(2008), 「독서 흥미, 독서활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이 국어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제20권 2호, pp. 75~90.
- 신아영(2010), 『국어교과서의 텍스트 유형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종호 · 유승민 · 서은진(2008), 「지각된 수단성, 숙달목표지향성,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제9권 4호, pp. 23~37.
- 심우엽(2001), 「연령에 따른 학습동기의 변화」, 『초등교육연구』, pp. 19~44.
- 옥현진 · 김경희(2011), 「PISA 2009 읽기 영역 결과 분석 연구」, 『국어교육』 134집, pp.

383~406.

이경화(2005),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독서 전략 연구」, 『새국어교육』 제71집, pp. 213~233.

임은미 · 이성진(2001), 「중고등학생의 학업동기 구조」, 『아시아교육연구』 제2권 1호, pp. 89~111.

임현정(2009),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IV)』, 서울: 한국교육개발.

장명덕 · 정철 · 정진후(1999),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과 과학 탐구 능력 및 과학 성취도와의 관계」, 『한국지구과학학회지』 제29권 2호, pp. 137~142.

조현칠(2011), 「내외적 학습동기, 자기결정성, 목표지향, 자기지각, 지능관 및 자기조절학습전략 요인들의 학습태도, 학습행동 및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 『교육심리연구』 제25권 1호, pp. 33~60.

최숙기 · 박기범(2012), 「읽기 성취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 간 성별 차이 분석 및 교육적 방안 템색」,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5권 1호, pp. 239~266.

최진황 · 이윤(2003), 『중학교 영어과 교수 학습 방법 및 자료개발 연구-극화 활동을 중심으로(연구보고 RRI 2003-6)』,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진흥능력개발원(2011), 『2011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서울: 한국진흥능력개발원.
Baker, L. & Wigfield, A.(1999), "Dimensions of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and their relations to reading activity and reading achievement," *Reading Research Quarterly* 34(4), pp. 452~477.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8, pp. 238~246.

Brazo, W. G., Shiel, G. & Topping, K.(2007), "Engagement in reading: Lessons learned from three PISA countries,"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1(4), pp. 304~315.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K.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Byrne, B. M.(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Coe, R.(2002), "It's the effect size, stupid: what effect size is and why it is importa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2002, England.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Corpus, J. H., McClintic-Gilbert, M. S. & Hayenga, A. O.(2009), "Within-year changes in children's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Contextual predictors and academic outcom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4(2), pp. 154~166.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 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ole, J. A., Nokes, J. D. & Drits, D. (2009), "Cognitive strategy instruction. in S. E," Israel & G. G. Duffy(eds.), *Handbook of research on reading comprehension*, New York: Routledge, pp. 347~372.
- Driessen, G. & Sleegers, P.(2000), "Consistency of teaching approach and student achievement: an empirical test,"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11(1), pp. 57~79.
- Glass, G. V., McGaw, B. & Smith, M. L.(1981), *Meta -Analysis in Social Research*, London: Sage.
- Golon, A. S.(2007), *Boys vs. Girls: Are boys more visual-spatial than girls? Why gender matters in every classroom*, <http://www.visual-learners.com>.
- Hair, J. F., Black, B., Babin, B.,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2005),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NJ: Prentice Hall.
- Hancok, G. R.(199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s of hypothesis testing of latent variable mean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 pp. 91~105.
- Hong, S., Malik, M. L. & Lee, M.(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pp. 636~654.
- Karim, N. A. & Hasan, A. (2007), "Reading habits and attitude in the digital age: Analysis of gender and academic program differences in Malaysia," *The Electronic Library* 25(3), pp. 285~298.
- Kirsch, I. S. & Guthrie, J. T.(1984), "Adult reading practice for work and leisure," *Adult Education Quarterly* 34(4), pp. 213~232.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 Kubis, M.(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literary environments and attitudes toward reading in ninth-grader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85822.
- Lepper, M. R., Corpus, J. H.,& Iyengar, S. S.(2005),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in the Classroom: Age Differences and Academic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2), pp. 184~196.
- Linnakylä, P. & Malin, A.(2000), "How to reduce the gender gap in reading literacy", Northern Light of PISA, <http://www.oecd.org>.
- Logan, S. & Jonston, R. S.(2009), "Gender differences in reading ability and attitudes: Examining where these differences lie,"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32(2), pp.

199~214.

OECD(2004),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first result from PISA 2003*, Paris: OECD Publications.

Paris, S. G., Lipson, M. Y. & Wixson, K. K.(1983), "Becoming a strategic reader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8, pp. 293~316.

Partin, K.(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dolescent attitude toward reading and home literary environment," *Reading Horizon* 45(1), p. 61.

PIRLS(2006), "International Report," http://timss.bc.edu/pirls2006/intl_rpt.html.

Sailors, M. & Price, L. R.(2010), "Professional Development That Supports the Teaching of Cognitive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3), pp. 301~322.

Smith, M. W. & Wilhelm, J. D.(2002), *Reading Don't Fix No Chevys: Literacy in the Lives of Young Men*, Portsmouth, NH: Heinemann.

Posner, M. I. & Carr, T. H.(1992), "Lexical access and the brain: anatomical constraints on cognitive models of word recogni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95(1), pp. 1~26.

Schöwnwetter, D., Clifton, R. A. & Perry, R. P.(2002), "Content Familiarity: Differential Impact of Effective Teaching on Student Achievement Outcom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3(6), pp. 625~655.

Skaalvik, S. & Skaalvik, E. M.(2004), "Gender differences in math and verbal self-Concept, performance expectations, and motivation," *Sex Roles* 50(3-4), pp. 241~252.

Stanovich, K.(1986), "Matthew effects in reading: Some conseq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cquisition of litera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0, pp. 360~407.

Wang, J. H. Y. & Guthrie, J. H.(2004), "Modeling the effects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mount of reading, and past reading achievement on text comprehension between U. S. and Chinese students," *Reading Research Quarterly* 39(2), pp. 162~186.

Wilhelm, J. D.(2002), "Getting boys to read: It's the context!," *Scholastic Instructor*, pp. 16~18.

Wolters, C. A. & Pintrich, P. R.(1998), "Contextual differences in student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mathematics, English, and social studies classroom," *Instructional Science* 26, pp. 27~47.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4), pp. 614~628.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른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분석

주영주 · 서혁 · 이소영

본 연구는 중학생의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을 변인으로 선정하여 구조적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성별에 따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05) 패널데이터 중 3차년도(2007)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독서태도, 외재적 학습동기,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의 순으로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에서의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이 모두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 집단 간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 및 국어 성취도에서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핵심어 중학교 국어 교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 국어 성취도, 잠재평균 분석

Abstract

The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among Extrinsic Motivation, Reading Attitudes, Learning Strategies, Students' Perception of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Korean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o, Young-ju & Suh, Hyuk & Lee, So-young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and gender difference among extrinsic motivation, reading attitudes, learning strategies, students' perception of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Korean achievement of 3rd year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the Korea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05(KELS 2005)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alysis, extrinsic motivation, reading attitudes, learning strategies, and students' perception of instructional strategies affect on reading achievement. Second, according to latent means analysis (LMA),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latent mean values on all variables. Last, according to the multiple group structural analysis, none of the constraints for the structural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 each of the paths to be equal across gender.

KEYWORDS Korean Education, Gender Difference, Extrinsic Motivation, Reading Attitudes, Learning Strategies, Instructional Strategies, Achievement, Latent Means Analysis